

OK! 지금은
전남시대

2026년 꿈꾸는 청소년들의 성장예세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Jeollanamdo Institute for Talent & Lifelong Education

Contents

책을 내면서	04
--------------	----



가장 순수한 곳에서 배운 사랑 / 조혜미	06
------------------------------	----



검은 반도체를 꿈꾸게 한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 최선	12
-------------------------------------	----



생태로 이어진 미래, 꿈을 잇는 장학금 / 박정하	14
-----------------------------------	----

상생이라는 이름의 다리 위에서 / 정자윤	17
------------------------------	----

전통을 잇는 배움, 다시 시작한 나의 길 / 하유진	20
------------------------------------	----

붓 끝에 실린 울춘 현대의 응원, 문화재 복원의 꿈 / 차지예	22
--	----

장학금에서 희망으로, 나의 성장 기록 / 노상엽	25
----------------------------------	----

받아본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 배소망	28
------------------------------	----





뜬구름에 닿게 해준, 나의 든든한 발판 / 오이든샘	31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 전남이 제게 선물한 두 번째 삶 / 응우옌독손	34
혼자 그리던 그림에 생긴 가능성 / 길은정	37
꿈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 / 조은서	40
나를 멜버른으로 보낸 한 장의 장학금 / 신정우	42
전남의 하늘에서 세계를 꿈꾸다:레이싱 드론 국가대표의 비행 / 김민재	47
눈 없는 전남에서 피어나는 나의 스키 꿈 / 오진서	49
나를 깨운 여명, 학생의 내일을 깨울 사명 / 김예찬	51
종이 위의 다짐, 세상을 향한 약속 / 박상우	53
도전 위에 쌓인 날들, 배움으로 피어난 나 / 나윤정	56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전남인평원)은 전라남도 지역의 인재양성과 평생교육 진흥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17년전 전남인재육성재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역 인재 육성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전남의 인재를 키우고자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많은 분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진 도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희망찬 미래를 함께 꿈꾸며 쉽 없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2021년 시작된 ‘꿈 청춘 에세이 공모전’은 이제 전남의 인재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뜨거운 소통의 장이자,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들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전하는 울림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번 에세이집에는 고난 속에서도 배움을 갈망하며 끝내 성취의 기쁨을 일궈낸 개척자들의 주도적인 성장기를 담았습니다.

신안에서 나고 자라며 마주한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별한 삶의 궤적을 독보적인 강점으로 승화시킨 조혜미 학생의 “가장 순수한 곳에서 배운 사랑” 에세이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교육대 진학 후 낙도와 소외 지역 아이들을 위한 참된 스승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장학금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는 든든한 날개가 되었다는 점이 무척 뜻깊고 기뻐했습니다.

최선 학생의 “검은 반도체를 꿈꾸게 한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에세이 또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안의 토양에서 자란 식품공학도로서 해외 식문화를 경험하고 돌아와, 이제는 목포 대양산단에서 우리 김의 세계화를 이끄는 품질관리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통해 지역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고향 전남에 당당히 뿌리내릴 확신과 이정표가 되었다는 사실에 커다란 자부심을 더해주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응우옌득손 학생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 전남이 제게 선물한 두 번째 삶” 에세이는 타국에서 마주한 시련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 담겨 있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모친상과 경제적 위기라는 시련 속에서도 IT 전문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그에게, 전남이라는 공동체가 내민 따뜻한 손길이 제2의 고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용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에세이집은 장학금이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서 고민하며 성장하는 청춘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이들의 열정은 전남의 찬란한 내일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기꺼이 공유하며 배움에 대한 뜨거운 집념을 증명해 준 모든 장학생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원석 같은 이야기 속에서 빛나는 가치를 발견해 주신 심사위원분들과 장학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남 교육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도민 여러분의 지지가 있었기에, 이 소중한 기록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 담긴 긍정의 기운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닿아,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2026년 4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범 희 승**



2026 꿈의 청춘들의 성장에 이끄는



대상

가장 순수한 곳에서 배운 사랑



대상 경인교육대학교 조혜미
2024년 전라남도 장학생

‘사랑은 그 자체로 머물 수 없다. 그렇다면 의미가 없다. 사랑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행동이 바로 봉사이다.’ 이 명언은 제가 처음 전남 인재장학금을 신청할 때 지원동기에 적었던 명언입니다. 약 1년 전 저는 이 명언처럼 아이들을 위한 사랑을 가지고 배움을 나누며 저 또한 그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초등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그 꿈의 문턱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를 신안에서 다녔습니다. 신안군의 많은 섬 중에서도 저는 압해도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후로 다리가 생겨 목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놓인 섬에 살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보성에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목포 쪽으로 가거나 배를 타고 다른 섬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목포로 가는 것은 농어촌 전형을 쓰기가 어려웠고 매주 배를 타며 학교에 다니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속버스로 2시간 걸리는 보성에 있는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고등학교를 재학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재학하면서 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며 항상 저를 보호해 주시고 바른길로 이끌어주는 진정한 어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저를 밝게 맞이해주시고 수업을 통해 지식을 나누는 선생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미래에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진정한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재학 중 항상 저는 교육대학교를 꿈꾸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수시원서를 쓰는 날,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대학교

에도 원서를 써보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날, 저는 광주에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에 합격할 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경인교육대학교에도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대학교에 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은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은 인천에 있는 경인교육대학교에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지역 근처가 아니기에 밀려오는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무엇보다 교통비 및 생활비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어머니께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오로지 꿈을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학교를 선택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저의 내면은 경인 교대를 향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학교를 선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 인재 장학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은 저에게 매우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저는 제가 원하던 대학교인 경인교육대학교를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비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은 저에게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장학금에 합격하고 나서 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대학교 1학년은 학생들 앞에서 실제로 수업은커녕 학생들을 실제로 볼 기회조차 적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학금을 받은 덕분에 무언가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지원해 보았습니다. 먼저, 직접 초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진행해 볼 수 있는 세계 시민 교육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업을 1회 참관하고 수업 계획안을 구성해 본 뒤 수업을 1회 진행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세계 시민 교육에서 강조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기후변화와 해양 보존을 주제로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직 교사분과 1대1 매칭

이 되어 수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처음 써보는 수업 계획안에 어떻게 써야 할지 감도 오지 않고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인터넷에서 탐구해 보고 자료를 참고한 후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여 현직 교사분께 보냈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 빗금,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의 밑줄이 가득한 파일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이기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다시 수정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으로 수업 계획과 관련한 책도 사서 읽어본 후 다시 수정하여 수업 계획안을 보냈고, 선생님과 협의 끝에 수업 계획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 계획안을 바탕으로 끝벌의 멸종과 해양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긴 했지만,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아직 1학년이지만 수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다는 점이 뿌듯했고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아 유익했습니다.

저는 더욱 용기를 내어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장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신청하였습니다. 성장멘토링은 현직 교사 1명과 대학생 5명이 한 팀이 되어 교육에 대해 탐구해 보고 실제 학교 현장에 방문하여 함께 학생들과 놀이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와 팀을 이룬 선생님은 경기도 김포시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만들어오신 학급 아이들 소개 영상을 보았는데 제 예상보다 다문화 배경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다문화 배경 아이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다양한 학급 구성원이 존재했습니다. 저도 다문화 배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들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한국인이시고, 어머니는 필리핀에서 오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의 특별한 가족 형태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신경 쓰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그렇기에 저는 초등학생 때 놀반에서 엄마의 모국인 필리핀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자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저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

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을 만나고 담임선생님께서 제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다른 학생과 차이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고 무한한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나이를 먹고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날수록 저와 같은 다문화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지만 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다문화 친구들은 자신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장멘토링을 진행하며 담당 선생님의 학교에 방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놀이를 준비하고 학교에 직접 방문했을 때 마주한 아이들의 모습은 영락없이 순수한 초등학교 3학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놀이를 진행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 덩달아 웃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는 사실 전혀 한국어를 못하는 아이도 있어서 한국어반이 만들어져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고장이 떠올랐습니다. 전라남도에도 이처럼 소규모 학교들이 정말 많고 그중에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들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이 중요하고 제가 그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지도해주신 저의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이제는 저도 아이들에게 그 뜻을 가르쳐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소외 지역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대학생 12명이 강화도에 소규모 초등학교에 가서 5일 동안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1, 2, 3학년들 13명을 담당하는 팀에 들어가 5일 동안 어떤 수업을 진행할지 계획하고 준비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아이들과 점차 친밀해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니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질문할 때 저도 덩달아 설레었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악 수업이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 아이들이 잘 따라 하지 못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지루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매우 당황하였지만, 다른 대학생 선배들과 함께 협력하며 무사히 수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이 몰래 편지를 써서 대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저는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했던 한 아이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직 1학년이어서 수업을 진행할 때도 제게 이 글자는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던 아이가 마지막 날에는 제게 정성을 담아 꺾꺾 눌러쓴 글자가 적힌 쪽지를 주었습니다. ‘선생님 새해복많이받으세요’라는 몇 자 안 되는 쪽지가 제 마음을 울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 저를 교사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불어 저는 저의 고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 전라남도에도 이렇게 교육에서 소외되고 관심의 손길이 절실한 아이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안으로 매일 다리를 건너 출퇴근하며 배움을 나누던 선생님들, 이제는 저도 아이들에게 배움을 나누는 진정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꿈은 분명해졌습니다. 교사가 되어, 제 고향 아이들에게 배움과 사랑을 전하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남 인재 장학금과 함께라면 그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충분한 상태에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저를 믿고 지원해 주시는 많은 감사한 분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이번 연도 목표는 해외로 교육실습을 나가보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게 많지만, 시야를 넓혀 더 큰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어 공부도 하고 면접 준비도 하고 어느 하나 허투루 해야 하는 것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문화 속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가치를 직접 몸

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준비의 시간이 쉽지 않겠지만 장학금으로 인해 자신감을 얻고 저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디디며 제 안에 숨겨진 가능성과 열정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움의 연속이고 하루하루가 세상과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정입니다. 많은 경험이 제게 준 감동과 책임감을 마음에 새기며, 교사가 된 내일의 제가 더욱 따뜻하고 힘찬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머물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배운,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저는 그렇게 오늘도 꿈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검은 반도체를 꿈꾸게 한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최우수상 국립목포대학교 최선
2024년 전라남도 장학생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나는 논문과 취업 준비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진로를 고민하던 어느 날, 학과 공지에 올라온 2025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안내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지원할 수 있었던 장학금은 전남정착 장학금 중 첫번째 취업장려 장학금이었다. 평가 항목에 '에세이'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지난 시간을 돌아볼 기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동안 전남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청계중학교에서의 복나눔멘토링 활동, 신안 퍼플섬에서 라벤더 아이스크림을 기획하고 판매했던 창업동아리 프로젝트까지. 당시에는 그저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지만, 에세이를 쓰며 그 모든 시간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생활비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신청한 장학금이었지만, 막상 수령하고 보니 그것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여유였다.

식품공학을 전공한 나에게 다양한 가공식품을 먹어보는 경험은 곧 배움이 었다. 학부연구생 생활로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조차 없었기에 내가 그동안 접할 수 있는 것은 국내의 가공식품이 전부였다. 졸업발표 준비를 마친 뒤, 장학금으로 오래도록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해외여행을 결심했다. 선택한 곳은 일본이었다. 편의점 간편식과 유제품 산업이 발달한 나라,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판매했던 나의 경험과도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는 곳이었다. 일본에서 맛있는 어느 아침, 삼각김밥을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초등학교 1학년, 과학실험 방과후 시간에

현미경으로 김을 관찰하던 날이었다. 그때 선생님은 “한국 삼각김밥에 쓰이는 김은 대부분 일본에서 온단다.”라고 말씀하셨다. 문득 지금은 어떨지 궁금해져 뉴스를 찾아보았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의 김 생산 기술을 배우러 오고 있었고, 한국의 김은 ‘검은 반도체’라 불릴 만큼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었다.

그날의 삼각김밥 한입은 나의 진로를 결정지었다. 나는 한국 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관리하는 품질관리자가 되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 바람은 현실이 되었다. 현재 나는 목포 대양산단의 김 공장에서 품질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덕분에 생활의 부담을 덜고, 끝까지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의 꿈은 김이 수출 효자라는 의미의 ‘검은 반도체’를 넘어, 반도체만큼 위생적이고 정밀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김을 세상에 내놓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마침 목포 대양산단이 관세청에 등록되며 김 수출 실적이 전남으로 집계된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꿈을 이어가기 더없이 좋은 출발선이었다.

전남인재육성 장학금은 나에게 단순한 경제적 여유가 아니라 방향을 주었다. 머물 이유를 만들어주었고, 전남에서 꿈을 꾸고 뿌리내릴 용기를 주었다. 이 장학금이 있었기에 나는 오늘도 내가 선택한 이 땅에서, 나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내가 사랑한 전남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사무실에서 이 글을 마친다.

사진 설명: 목포 대양산단 사무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 전경.



생태로 이어진 미래, 꿈을 잇는 장학금



우수상 건국대학교 **박정하**
2024년 전라남도 장학생

어릴 때부터 나는 동물과 자연을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바라보아 왔다. 특히 멸종위기종과 자원 가치가 높은 동물에 관심이 많았고, 내가 자라온 전남 신안의 해양생물과 갯벌 생태는 이러한 관심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지켜야 할 가치이자 미래의 진로로 인식하게 했다. 그러나 이 관심을 실제 진로로 발전시키는 과정은 전혀 쉽지 않았다. 생태와 동물자원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스스로 찾아야 했고, 현장 경험과 학업을 병행하는 데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따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학금은 학업과 현장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 현실적인 버팀목이었으며, 내가 선택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나는 막연한 관심에 머무르지 않고, 진로를 현실적인 목표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다. 1학년이 된 뒤에는 농촌 체험 활동에 참여하여 작물 재배와 축산 환경을 직접 경험했다. 교과서로만 접하던 농업과 동물자원 연구가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변수와 노력이 필요한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지역의 자연환경과 산업, 그리고 동물자원 연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내 진로 인식에 큰 변화를 주었다. 연구는 실험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삶과 맞닿아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이와 함께 생명과 동물복지에 대한 나의 신념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유기견 보

호소 봉사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보호소에서 만난 동물들은 저마다 다른 상처와 성격, 건강 상태를 지니고 있었고, 그만큼 세심한 관리와 책임감이 요구되었다. 위생 관리와 건강 돌봄을 돕는 과정에서 작은 부주의 하나가 동물의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했다.

이 경험은 ‘존중받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고, 내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연구의 방향을 더욱 분명히 만들어 주었다. 단순히 자원을 활용하는 연구자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이때 확고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의 과정이 언제나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처음 참여했던 농촌 체험과 봉사 활동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실패를 자주 마주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작물 재배 일정이 어긋나기도 했고, 축산 환경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스스로 부족함을 느낀 적도 있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도 성격과 상태가 다른 동물들을 동시에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아, 책임감의 무게를 실감하며 고민하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의 경험은 나를 주저앉히기보다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문제의 원인을 돌아보고,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며, 현장의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배우게 되었다. 그 결과 이후의 활동에서는 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었고, 학업과 봉사 모두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실패를 통해 배운 ‘세심함’과 ‘책임감’은 지금의 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가치가 되었다.

또한 장차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 학업적인 준비도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 국제 자료와 연구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 토익 공부를 이어가며 기초적인 언어 역량을 쌓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글로벌 관점에서 생태와 동물자원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밑

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내가 선택한 진로를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다.

이번 ‘꿈 청춘 에세이’ 공모전에 참여하며, 나는 장학금이 한 학생의 현재를 지탱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장학생으로서 경험한 배움과 현장 활동을 바탕으로, 나는 멸종위기종 보전과 동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이라는 목표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전남의 생태환경과 과학적 연구를 연결하여 지역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인재로서 전남의 미래에 이바지하는 연구자로 발전하고 싶다.

장학금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나는 오늘도 장학생으로서의 책임감을 마음에 새기며,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는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한 나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고 있다.





상생이라는 이름의 다리 위에서



우수상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자윤
2025년 취업장려 장학생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받은 장학금은 내게서 결코 ‘받았다’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든 동력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선도할 공학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산에 서 전남 나주로 건너온 결심에 대해 한 지역이 건넨 따뜻한 응원이었다. 장학금은 금액의 지원을 넘어, 한 사람의 선택을 사회가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선언이다. 나는 그 선언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고, 이제 그 문장을 ‘다음장’으로 이어 쓰는 일이 나의 책임이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과학은 내게 과목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언어였다. 전국과 지역의 수학·과학 대회에서 1위를 거둬하며 부산에서 ‘미래과학도’로 선정되어 과학축전과 과학행사에서 강연자로 서기도 했고,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는 리더로 활동하며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애썼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분명했다. 성취는 개인의 재능만으로 완성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신뢰와 제도, 동료와 공동체가 만들어 주는 환경 위에서 자란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진로의 갈림길에서 사회는 한 줄의 간판과 익숙한 길을 정답처럼 제시한다. 모두가 서울을 향하는 흐름 속에서 나 역시 수없이 ‘왜 굳이?’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완의 환경을 성장의 무대로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기 총장장학생이라는 선택을 했다. 신생대학에서의 한 사람의 성장이 나주를 거쳐 전남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의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직접 증명하고 싶었다. 그 꿈을 위해 전남

도민이 되어 나주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면 출발선에서 내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부산에서 자라며 ‘영호남’이라는 단어를 먼저 들었고, 전남에 대해 막연한 거리감을 품고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주에서 경험한 전남은 그 거리감을 조용히 해체했다. 사람들은 깊은 정을 품고 있었고, 친절했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에너지가 도시 곳곳에 배어 있었다. 무엇보다 그 변화는 내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전남에서의 일상을 전할 때마다 부모님과 가족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한 사람이 살아낸 경험이 편견을 바꾸는 데 생각보다 큰힘이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지점에서 장학금의 의미는 더 선명해졌다. 장학금은 내게 “더 열심히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네 선택을 함께 지지한다”는 동행이었다. 그 동행 덕분에 나는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계산하기보다, 지적 호기심이 이끄는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지 않았던 공부와 만남이 뜻밖의 지점에서 연결되며 유의미해지는 경험을 반복하자, 배움은 성적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세계를 확장하는 감각이 되었다.

나는 그 책임을 지역 속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나주시 청년정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전남도민의 날 홍보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며, 나주시 청년대표 선서자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지역 멘토링 봉사를 이어가며, 내가 가진 경험과 역량이 지역사회에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지점을 찾고자 했다. 2023 대한민국인재상, 2025 대통령과학장학생 선정으로 이어진 성과 역시 나에게서는 명예라기보다 증거였다. 전남의 장학제도와 공동체가 한 학생의 도전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고, 그 성장이 다시 지역과 국가의 자산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증거 말이다.

나는 앞으로 더 밀도 있게 도전할 것이다. 국가 경쟁력을 갖춘 연구자이자 기술을

실현하는 CEO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과학정책의 컨트롤 타워에서 과학자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주 소도시의 신생 대학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자가 한국에서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정책을 구상해 국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연구가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술이 산업으로만 끝나지 않으며, 정책이 종이 위에서 멈추지 않도록 - 그 사이를 잇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부산에서 전남으로 건너온 나의 이동은 지리의 변화가 아니라 시선의 변화였다. ‘영호남’이라는 단어가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시키는 연결의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전남에서 배웠다. 장학금이 내게 놓아 준 그 다리 위에서, 나는 이제 다음 사람의 다리를 함께 놓으려 한다.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한 학생의 날갯짓이 대한민국 과학계와 더 넓은 세계의문제까지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힘이 되도록 - 그것이 장학금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이야기이며, 내가 앞으로 증명해 나갈 약속이다.





전통을 잇는 배움, 다시 시작한 나의 길



우수상 전남도립대학교 **하유진**
2025년 만학도 장학생

저는 건축을 공부하며 설계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옥의 기둥과 보, 처마의 곡선을 따라가다 보니 그 안에 스며 있는 우리 전통의 시간과 철학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은 단순히 오래된 형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온 구조라는 사실을 건축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찾던 전통이 사실은 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온 쌀엿과 조청, 어머니가 오랜 세월 지켜온 전통의 솜이 바로 저의 또 다른 전통이었습니다.

그 전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어가기 위해 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조청을 배우며 전통의 손맛을 익혔지만, 동시에 그 원리를 알고 싶다는 갈증도 커졌습니다. 왜 엿기름이 필요하고, 왜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지, 발효의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다시 대학의 문을 두드렸고, 식품생명과학을 전공하며 전통을 학문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시간은 쉽지 않았지만,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은 저를 다시 교실로 이끌었습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실습과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때 만학도 장학금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회의 응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저는 실습과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전통 조청을 활용한 건강 간식 개발에 본격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청의 깊은 단맛을 살리면서도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란다와 강정을 연구했습니다. 설탕에 익숙한 입맛을 고려하되 지나치게 달지 않도록 배합을 조절하고, 식감과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교실에서 배운 발효와 효소의 원리는 부엌에서의 실험으로 이어졌고, 어머니의 솜은 저의 또 다른 연구실이 되었습니다. 전통은 손끝에서 이어지지만, 그 가치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때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조청 오란다와 강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학교를 통해 지역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마을학교는 아이들이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공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조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직접 강정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설탕이 아니에요?”라고 묻던 아이들은 발효에서 오는 단맛을 알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강정을 손에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은, 전통이 책 속 지식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살아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더 큰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전통 조청을 활용한 건강 디저트의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시작된 배움과 연구는 이제 지역과 미래를 잇는 가능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과거를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의 방식으로 다시 해석하여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전통을 잇기 위해 다시 배움의 길에 섰습니다. 그 배움은 이제 제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손에 쥐어진 작은 강정처럼, 우리의 전통도 누군가의 일상이 되어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그 연결의 다리가 되어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단단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봄 끝에 실린 울촌 현대의 응원, 문화재 복원의 꿈



우수상 추계예술대학교 차지에
2025년 울촌현대 장학생

제 인생의 첫 번째 큰 도전은 전남 광양에 세워진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의 1회 입학생이 된 것이었습니다. 1회라는 숫자가 주는 설렘 뒤에는 사실 묘한 압박감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도 건지 않은 눈길 위에 후배들이 보고 따라올 멋진 이정표 하나는 꼭 남겨두고 싶다는 마음으로 3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의 열정은 대학 진학 후에도 식지 않았고, 다행히 지금까지 성적 우수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며 저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학비나 재료비 걱정은 아빠, 엄마가 할 테니 너는 그저 마음껏 네 그림을 그려라”라며 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예술가로서의 제 성장이 멈출 것만 같다는 불안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학기 제 성적으로 그 지원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지원받게된 ‘울촌현대 특별지정 장학금’은 저에게 단순한 장학금 혜택 이상의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학생에 머물러 있던 저를, 지역 사회와 기업이 주목하는 한 명의 예비 예술가로 인정해 주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화 전공은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천연 안료나 전문적인 종이, 비단 가격을 확인하다 보면 가끔 “이 종이에 금이라도 발랐나?” 싶을 정도로 학생 신분에는 부담스러운 순간이 많습니다. 기꺼이 지원해주실 부모님이 계시지만, 저는 이번 장학금을 활용하여 부모님의 지원없이 재료비만큼은 제힘으로 해결해보자고 결심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원받은 장학금으로 직접 산

붓과 안료로 화폭을 채울 때 비로소 제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묘한 쾌감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전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이런 실질적인 기회를 열어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시스템과 울촌 현대의 배려는 저에게 독립심이라는 가장 귀한 인생의 밑거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런 독립적인 마음가짐으로 전공에 몰입하던 중, 제 성실함을 좋게 봐주신지도 교수님께서 촬영 소품 제작 현장 중 한국화 작품 제작에 참여해볼 기회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만 이론으로 배우던 한국화 기법들이 촬영장에서 어떻게 숨 쉬고 활용되는지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한국화 소품들의 세계는 제 전공에 대한 좁은 시야를 완전히 넓혀주었습니다. 영상의 시대적 배경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병풍의 산수화부터 고풍스러운 서책의 필체, 벽면에 걸린 크고 작은 화폭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그려내는 과정은 그야말로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조명 아래서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게 빛나는 전통 안료의 색감과 한지의 부드러운 질감이 스크린 너머의 가상 공간을 실제 역사 속 공간으로 바꿔놓는 장면을 보며, 저는 우리 전통 회화가 가진 강인한 생명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들이 단지 촬영 후 에 사라지는 소품을 넘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진짜 문화재가 된다면 어떨까?”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물관 유리 뒤에 박제되어 멈춰 있는 과거가 아니라, 제 손끝에서 다시 태어나 현재의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재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국가유산 수리기능자 모사공(模寫工)이라는 국가 자격증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작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 후대로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모사공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재료와의 외로운 전쟁’이었습니다. 문화재 복원용 전통재료를 구하기도 까다로울뿐더러 가격도 학생이 감당하기엔 상당히 높습니다. 부모님

께 손을 내밀면 언제든 도와주셨겠지만, 저는 올촌 현대 장학금을 쪼개고 아끼며 끝까지 제 자존심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내 힘으로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재료들로 비단 위에 선 하나를 그을 때의 집중력은 부모님 돈으로 샀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집요해졌습니다. 실패하면 내 소중한 장학금을 헛되게 만든다는 아찔한 긴장감이 오히려 저를 더 철저한 완벽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붓을 쥐는 손가락 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안료의 농도를 수십 번씩 조절하며 밤을 지새우는 시간들은 저에게 단순한 기술 연마를 넘어, 목표를 향해 스스로를 다스리고 계획하는 강한 자립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준비해온 긴 여정의 결실을 맺기 위한 결전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와 실기 연습으로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충만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 과정이 외롭지 않은 이유는, 제 뒤를 지켜주는 부모님의 사랑과 올촌현대 장학금이라는 지역 사회의 따뜻한 응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한국화 전공자가 점점 줄어든다고 걱정하지만, 저는 그만큼 희소하고 가치있는 길이며 제가 지켜야 할 자리가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전남의 많은 학생들에게도 이런 소중한 기회가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올촌 현대가 운영하는 이 장학 프로그램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한 청년이 자신의 한계를 깨고 장래를 설계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에서 품은 어린 예술가의 꿈이 이제 문화재 복원 전문가라는 결실로 이어지려고 합니다. 저의 가능성에 특별한 투자를 해주신 만큼, 저 또한 대한민국 문화유산을 지키는 특별한 인재가 되어 그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 인생의 화폭에 자신감이라는 짙은 먹선을 그려주시고, 새로운 꿈을 향해 홀로 설 용기를 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장학금에서 희망으로, 나의 성장 기록

우수상 경희대학교 노상엽

2025년 해양에너지 장학생

2023년, 열아홉의 나이에 저는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어찌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이, 갈림길에 서 있던 저였기에 상실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당시 미성숙한 저에겐 단순한 큰 슬픔을 넘어 제 삶 전반을 흔들여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하루아침에 가족의 중심을 비워 놓았고, 저는 감정을 정리할 틈도 없이 학업과 현실을 동시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선 항상 저에게 괜찮냐고 걱정해주시던 선생님들, 저에게 힘내라며 위로를 해주던 친구들 덕분에 마음은 괜찮아지나 싶었지만, 슬픔을 애써 눌러두고 책상 앞에 앉은 것은 결국 마음과는 다른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결국 수능은 실패로 끝났고,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이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19살의 나이에 뼈아프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좌절 속에서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수를 결심한 이유는 단순히 대학을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진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힘든 1년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듯 공부하며 스스로를 다잡았고, 그 결과 2024년에 치뤄진 수능에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성적을 얻어 경희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계셨다면 가장 먼저 기뻐해 주셨을 순간이었기에, 그 합격은 기쁨과 그리움이 함께 섞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은 또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빈 자리로 가정 형편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고, 저의 실수로 인해 기숙사에도 선발

되지 못해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하차 알바와 학업을 병행해야 했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은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연히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 외로이 힘써주시는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공부한 결과, 1학기 과 차석이라는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종강 후 받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금은 제 삶의 흐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제게는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150만원은 작은 돈일 수 있지만, 당시 저에겐 몇달의 생활비와 월세를 충당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여유’로 체력 소모가 컸던 쿠팡 알바를 그만두고 제가 꿈꿔왔던 과외로 전환 할 수 있었습니다. 고3 학생을 맡게 되어, 어려움속에서 수능을 준비하던 저의 모습과 겹쳐 보였고,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과외로의 전환 덕분에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장학금은 제 노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준 든든한 기반이었습니다.

그 결과 2학기에는 동기들과 어울려 놀고 학교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학교생활을 뒤늦게나마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생활이 안정된 만큼과 차석을 넘어선 과 수석 ‘과탐’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최종 석차는 나오지 않았지만 스스로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분투를 여유로 바꿀 수 있도록 손을내밀어 준 존재였습니다.

이제 저는 도움을 받는 청춘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남에서 제 전공인 환경공학, 화학공학을 살려 취업하여, 이곳의 미

래를 이끌어 갈 인재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한 사람의 청춘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장학금의 의미를 기억하며, 언젠가는 저 또한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시작된 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받아본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우수상 조선대학교 배소망
2025년 다자녀 장학생

장학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성적표 위에 적힌 숫자나 화려한 수상 이력을 먼저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 장학금은 뛰어 남의 증명이 아니라 흔들리던 시기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조용한 응원이자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준 고맙고 중요한 계기였다.

대학에 진학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고 싶은 공부와 경험들은 분명 많아도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학업과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해야하는 상황에서 버티는 것마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미래를 꿈꾸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상상은 종종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여유를 잃어갈수록, 그 꿈은 점점 추상적인 말로만 남아갔다.

그런 시기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금 소식을 듣게 되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기쁨보다도 놀라움이었다. 누군가가 나의 지금을 보고,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장학금액이 나의 생활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는 않았지만, 그 장학금이 가진 의미는 생각보다 컸다.

장학금은 내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춰주었다.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전공 수업과 다양한 서포터즈와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학교생활에 집중하며 즐길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버티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꿈을 향해 준비하는 학생으로 나 자신을 다시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학업의 결과로도 이어졌다. 주말엔 하루 종일 알바만 하던 전과는 달리 전공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과 성적 1위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성과는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회복지사의 길이 결코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는 확신으로 다가왔다. 누군가의 지원이 개인의 노력과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변화가 무엇인지,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분명히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서포터즈와 동아리에 참여하는 횟수도 늘어나며 다양한 봉사활동 현장에 나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와 현장을 배우며 나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작은 지원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장학금을 통해 직접 경험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꿈도 점점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장학금을 받은 이후 나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생활과 전공 활동에 참여하며 수업에서 다루는 사례 하나하나를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가 만날 사람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사회복지 현장이 가진 무게와 책임도 더욱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만약 그 시기에 장학금이라는 응원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현실의 벽 앞에서 꿈을 잠시 고민하며 내려놓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의 믿음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믿어볼 수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장학금은 나에게 ‘받는 경험’을 선물해 주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투자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몸으로 배울 수 있었다.

이 경험은 앞으로 내가 사회복지사로 살아갈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험을 통해 나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도움을 받는 사람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다. 나 역시 누군가의 지원을 통해 다시 나아갈 수 있었듯, 누구에게나 잠시 기대어 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장학금을 통해 버틸 수 있었던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의 삶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주고 싶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금은 내가 힘든 시기에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금도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장학금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언젠가 사회복지사로서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조용한 응원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그때 받은 믿음을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장려상

뜬구름에 닿게 해준, 나의 든든한 발판



장려상 서울교육대학교 오이든샘
2021년 전라남도 장학생

교육에 대한 꿈을 안고 힘든 입시 과정을 거쳐 교육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부모님의 기쁨 뒤에는 약간의 근심도 서려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위해 감당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남인재육성장학금은 우리 가족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저의 꿈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모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여수의 작은 섬에서 매일같이 자연에서 뛰어놀 때, 같은 나무라도 저마다 다른 결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르다는 것이 자연 속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무의식 속에서 배웠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혹은, 섬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우여곡절 끝에 입학했던 담양의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유독 세상에 소외된 곳을 향해 시선을 두고 계셨기 때문일까요? 그 시선을 좇았을 때 제가 바라보게 된 건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은 애초에 비장애인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 있는 것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제 주변에는 장애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것은 당연한 일인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곧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름은 칼날이 되어 우리를 찌개고 또 찌개었습니다. 칼날은 제 마음도 찢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



학생들을 포함하여,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성장하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제 꿈을 말했을 때 누군가는 응원해주었지만, 누군가는 그게 정말 가능하겠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과장된 광고라도 합부로 100%라는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99.9%까지는 있더라도요. 제가 원하는 건 100%였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학생을 포용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뜬구름은 본래 현실에 부딪히면 산산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대학생이 되자 더 이상 부모님께서 제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실 수는 없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삶의 무게는 점점 제 뒤통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돈 없이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용 시험을 준비할 때는 학업에 온전히 집중해야 했기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염치 없게 느껴져, 혼자 울었던 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학금은 제가 현실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장학금이 없었다면 생계에 대한 고민으로 제 마음에 꿈이 설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꿈은 그저 세상물정 몰랐던 어린 시절의 치기였다고 덮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기반 없이 꿈을 꾸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학금을 통해 저는 시간을 벌었고, 경험을 샀습니다. 생계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 저는 제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세상을 더 구석구석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시각장애인 밴드의 공연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수어로 공연하였습니다. 그때 들리지 않아도 함께 음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운증후군인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연극에서는, 그 역할을 실제 다운증후군을 가진 배우가 맡아 연기하였습니다. 연극 속의 인물도, 배우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장애 예술 공연을 관람하면서, 제게는 더 이상 장애라는 것이 아무렇지 않아졌습니다. 무대 위에 있는 장애인은 최선을 다해 공연했고, 저는 그 공연에 장애인 관객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막연했던 제 꿈이 점점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그리고 저마다 다른 요구가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들이 펼쳐졌던 공간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건물의 구조와 동선부터 공연의 진행방식까지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교육적인 개념이 보편적 학습 설계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학생이 지닌 다양한 특성과 학습 방식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접하고, 장애 학생을 포함하여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성장하는 교실이 정말 실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학습 설계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대학원 생활에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는 다시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장학금이 그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지금, 저는 장학금 덕분에 제 꿈을 향해 또 한 걸음을 더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생계를 걱정하는 대신 배움에 몰두할 수 있었고, 막연했던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교육학에는 '비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건축에서 비롯된 이 용어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는 발판을 의미합니다. 제게 장학금은 마치 비계와도 같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하고 싶다는 뜬구름 같은 저의 꿈에, 너무나도 간절히 잡고 싶었던 그 꿈에 닿게 해준 든든한 발판입니다. 저는 이제 그 발판 위에서, 제 삶의 경험과 대학원에서의 연구를 토대로 뜬구름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 전남이 제게선물한 두 번째 삶

장려상 동신대학교 응우옌득손
2025년 외국인유학생 장학생



현재 나는 동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하지만 강의실에 앉아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면,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해보면, 나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수없이 고민하던 학생이었다. 가정 형편을 위해 당장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지, 아니면 대학 진학이라는 꿈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매일 밤을 지새우며 갈등했었다.

내가 가장 망설이던 그 순간, 부모님과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누나는 나에게 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어 주었다. 특히 부모님께서서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격려해 주셨다. 부모님의 조언에 힘입어 나는 교육 환경과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본 끝에, 동신대학교와 평화로운 땅 전라남도를 나의 새로운 기착지로 선택했다. 이곳 전남에 첫발을 내딛고 맑은 공기를 마시던 날, 나는 IT 전문가가 되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에게 거대한 폭풍이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대학교 2학년 봄날의 오후였다. 수업을 마치고 저녁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서둘러 버스에 올랐던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베트남 친척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누나랑 얼른 비행기 표 끊어서 들어오거라." 그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귀가 멍해지며 차창 밖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갔다. 어머니의 갑

작스러운 죽음은 나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타국에 있어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당장 잡아드릴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나는 정신적 지주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기둥까지 잃게 되었다. 장례를 치르고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다.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빛과 등록금이라는 무거운 짐이 내 작은 어깨를 짓눌렀다. 학업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생계를 유지하고 빛을 갚기 위해 밤낮없이 아르바이트에 매달려야 했다. 책과 함께 꿈을 키우던 대학생은 어느새 치킨 몸을 이끌고 일만 하는 기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도서관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잘 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갈까 수없이 고민했다.

그렇게 출구가 보이지 않던 암흑 같은 날들 속에서, 뜻밖의 한 줄기 빛이 내 인생을 비추었다. 어느 늦은 밤, 무심코 인스타그램을 넘기다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선발' 공고를 보게 된 것이다. 그 순간 심장이 얼마나 세차게 뛰었는지 모른다.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간절함을 담아 지원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2025년 연말, 장학금 입금 소식을 확인했을 때 나는 펄펄 울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에게 이 장학금은 단순히 학비를 해결해 주는 금전적 가치를 넘어, 전남이라는 지역 사회가 절망에 빠진 나에게 내밀어 준 따뜻한 손길이자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는 위로의 속삭임이었다.

장학금의 가치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해방' 그 자체였다.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움아매던 끈을 끊어주었고,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노동을 파는 대신 책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돌려주었다. 덕분에 나는 다시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A+ 학점과 전공 관련 자격증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

다. 마치 이 장학금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집세를 내주고, 비싼 전공 서적을 사주며 나를 보살펴주는 것만 같았다.

무엇보다 전남인재육성 장학금은 나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나는 전남이 더 이상 차가운 타향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제2의 고향임을 깨달았다. 어쩌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나를 위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나의 성장은 단순한 개인의 발전을 넘어, 어머니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는 여정이자 재단이 보내 준 믿음에 보답하는 길이다.

전남인재육성 장학금은 내 메마른 인생에 심어진 희망의 씨앗이다. 이제 나는 그 씨앗을 훌륭한 열매로 맺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컴퓨터 공학 분야의 지식을 끊임없이 갈고닦아, 훗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IT 전문가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나는 이곳 전남에 남아 내 청춘을 바쳐 도가 나에게 투자해 준 소중한 가치에 보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먼 곳에 계신 사랑하는 엄마에게 전하고 싶다. "엄마, 저 정말 용기 있게, 그리고 어른스럽게 살아갈게요.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곳 전남이 이제는 엄마를 대신해 저를 감싸주고 있어요. 저 이 땅에서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지켜봐 주세요."

나의 꿈을 다시 밝혀주고, 내 인생의 다음 챕터를 써 내려갈 기회를 주신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혼자 그리던 그림에 생긴 가능성



장려상 장흥고등학교 **길은정**
2025년 다자녀 장학생

어릴 적 저는 또래 친구들이 많지 않은 시골 외곽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그 시간 속에서 애니메이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장면을 따라 그리고, 저만의 이야기를 담아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애니메이션 감독이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인 어머니와 함께 자랐고,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또한 7남매 중 여섯째로 자라며 자연스럽게 참고 기다리는 법과 제 몫을 책임지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가족 모두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기에 하나 둘 씩 꿈을 포기하는 과정을 볼 수 밖에 없었는데 대학교 라이프를 꿈꾸던 언니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취업에 뛰어 들었고 회사를 꿈꾸던 오빠는 성인이 되자 바로 삼촌의 농사 일을 도우기 시작 하였습니다. 가정 환경은 나이지질 않았고 그 중 학원은 저희에게 사치처럼 느껴지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술을 제대로 배우고 싶었고 당시 미술과 목선생님이셨던 담임선생님께서 미술학원은 꿈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을 때, 제 꿈을 위해 반드시 도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한 애니메이션과을 접하고 저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역도서관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는 영화 속 재난 장면을 보며 어린 시절 일본에서 겪었던 지진과 무너졌던 집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작품이 단순한 이야기

를 넘어 한 사람의 기억과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었고,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만드는 창작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로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다 막연하게 중학생 때부터 홍익대학교애니메이션 학부를 진학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고, 그때부터 줄곧 관련 학과의 커리큘럼을 찾아보며 스토리텔링, 영상 역사, 사진, 2D·3D 애니메이션, 광고, 스톱모션, 사운드까지 폭넓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입학하게 된다면 모든 수업을 꼭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경제적 여건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주말마다 왕복 3시간 거리의 미술학원을 오가며 꿈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불안하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버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남인재육성 장학금은 저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미술학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계속해도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도 노력하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되었습니다.

그 결과 얼마전 저는 홍익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혼자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장학금과 여러 도움들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사람과 사회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도움처럼, 언젠가는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고 가능성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늘 제 환경보다 큰 꿈을 욕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남인재육성 장학금은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준 기회였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저는 앞으로도 제 꿈을 향해 나아가며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같은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



장려상 국립목포대학교 조은서
2024년 전남정착 장학생

출근 후 습관처럼 근무지 홈페이지를 넘기다 한 게시글에 시선이 멈췄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꿈·청춘 에세이 공모전 안내”. 행정 공지들 사이에서 유독 두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꿈, 청춘. 이미 사회인이 된 지금의 나에게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말들이었지만,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어린시절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 시절의 나는 늘 ‘알바몬’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았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탓에 쓰리잡, 포잡도 마다하지 않았고, 공부와 생계를 동시에 붙잡고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들이었지만, 그때의 나는 늘 백조처럼 물 위에서는 웃고, 물 아래에서는 쉬지 않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공부, 일, 인간관계를 동시에 챙기는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번아웃이 찾아왔다. 어른들은 나를 의젓하다고 했고, 친구들은 멋지다고 말했다. 모두가 나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정작 나는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 웃는 얼굴 뒤로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졸업을 앞두고 무력감이 나를 덮쳤다. 일을 그만둘 용기도 없었다. 언제나 돈 때문이었다. 그때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제도를 알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날은 노트북을 켜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다. 잘 쓰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그동안 쌓아두었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냈을 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전남정착 장학생이 되었다.

장학금은 내 인생을 단숨에 바꾸지는 않았다. 인생은 다큐이지 드라마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 장학금은 주저앉아 있던 나에게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과 선택지를 주었다. 아르바이트 하나를 줄일 수 있었고, 국가고시를 앞두고는 일을 내려놓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마음속에 눌러앉아 있던 무거운 납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 덕분에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에 합격했고, 현장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후 전남정착 장학금의 추가 지원은 또 다른 선택의 계기가 되었다. 안정적인 직장을 내려 놓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의 나는 국립목포대학교 글로벌대학 사업단의 일원으로 근무하며 지역과 대학의 미래를 설계하는 행정 실무를 수행하며 배우고 있다. 꿈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사람과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방향만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 장학제도는 내 삶의 마중물이었다. 지쳐 제자리에서만 펌프질하던 나에게 한 국자의 물을 건네주었고, 그 물 덕분에 나는 다시 흐를 수 있었다. 지금의 나는 그 흐름 위에 서 있다. 인평원이 건넨 마중물이 한 사람의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다. 그 시작을 함께해 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나를 멜버른으로 보낸 한 장의 장학금



장려상 국립목포대학교 **신정우**
2025년 전남-한전 지역상생 장학생

“이 논문을 막힘없이 읽을 수 있는 날이 올까?”

인공지능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던 시절, 영어로 가득한 논문을 마주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곤 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은 분명했지만,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 있었다. 바로 어학 능력이었다. 더 큰 무대에서 배우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한계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변화를 만들어야 했다.

그렇게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학교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날, 휴대전화 화면에 한 통의 알림이 떠올랐다.

‘2025학년도 하계 해외어학연수에 선발되었습니다.’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토록 바라던 기회가 내게 찾아온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고민이 뒤따랐다. 연수 비용은 학교에서 지원해 주었지만 현지에서의 생활비는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했다. 낯선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 보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러던 중 150만 원의 장학금에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건 내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도 된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었다. 언어라는 벽 앞에서 망설이던 나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용기였고, 나의 가능성을 믿어 준 응원처럼 느껴졌다. 덕분에 나는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고 어학연수라는 기회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호주에 도착한 첫날, 영어로 말을 건네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문장이 틀릴까 봐 머릿속에서 여러 번 고쳐 보다 결국 말을 줄이곤 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곧 찾아왔다.

같은 반에 있던 중국인 학생은 문법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말을 했다.

“문법 틀려도 괜찮아. 말하면 다 알아들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그의 영어는 어딘가 서툴렀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영어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전하려는 태도라는 사실을. 반대로 나는 틀리지 않으려는 마음에 스스로 입을 닫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말해 보기로 했다. 서툰 표현일 지라도 대화를 이어 가다 보니 영어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언어는 시험 점수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된 순간이었다.

연수 기간 동안 나는 또 하나의 도전을 선택했다.

‘How do young people use AI programs?’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영어로 발표한 것이다. 인공지능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꿈꾸는 나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이었다.

발표 당일,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Next, I will explain how young people use AI programs.”

처음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문장을 이어 갈수록 두려움보다 확신이 커졌다. 발표를 마쳤을 때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영어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경험은 글로벌 환경에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남았다.

장학금 덕분에 교실 밖에서도 더 넓은 세계를 만날 수 있었다. 퍼핑빌리 증기기관 차에 올라 울창한 숲 사이를 달리던 순간,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와... 나 지금 정말 행복하다.”



그토록 바라던 해외 경험을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울컥하는 감정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그레이트오션로드에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볼 때에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 풍경들은 더 넓은 세상이 존재하며, 그곳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나에게도 열려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 주는 듯했다.

이러한 변화는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어학연수를 다녀온 이후 TOEIC 점수는 이전보다 230점 상승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단순한 점수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섰다는 증거이자 스스로의 한계를 확장해 났다는 기록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장은 연구의 현장에서 나타났다. 영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이후 나는 교수님과 함께 영어 논문을 작성하는 기회를 얻었다. 처음에는 문장 하나를 완성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연구 내용을 영어로 정리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차 학문적 소통에 익숙해졌다.

그 결과 한 편의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또 다른 한 편은 투고가 확정되었다. 과거에는 영어로 된 논문을 읽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던 내가 이제는 직접 연구 결과를 영어로 세상에 전하고 있었다.

돌이켜 보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장학금이 있었다. 장학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준 출발점이었다. 그 믿음 덕분에 나는 더 넓은 세계를 꿈꾸게 되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 논문을 막힘없이 읽을 수 있는 날이 올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던 학생은 이제 영어로 논문을 쓰고, 그 결과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나는 인공지능 대학원에 진학하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성장하고, 국경

을 넘어 지식과 가치를 나누는 연구자가 되고자 한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장학금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그 가능성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가는 중이다.





전남의 하늘에서 세계를 꿈꾸다: 레이싱 드론 국가대표의 비행



장려상 한서대학교 김민재
2022년 한울타리 장학생

1. 설렘으로 시작해 열정으로 바뀐 비행

초등학교 시절,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드론을 처음 본 순간 느꼈던 그 떨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신기한 장난감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다가왔던 드론은 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한창 실력을 쌓아 대회에 나갈준비를 하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모든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막막한 시기였지만 저는 포기하는 대신 '드론 레이싱'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정점에 서기까지 1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오히려 제 안의 승부욕은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2. 지도에도 없던 길을 직접 만들며 건다

중학교 3학년, 저는 드론 레이싱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큰 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전라남도는 드론 레이싱의 불모지와 같았습니다. 주변에 배울 수 있는 학원조차 없어 스스로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지고 밤을 새워 자료를 찾아가며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목포에서 고흥까지 왕복 4시간 거리를 오가며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금전적인 부담과 육체적인 피로가 겹쳐 힘들때도 있었지만, 전남 최초의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목표 하나로 버텼습니다.

3. 나를 성장시킨 뼈아픈 질문, “그다음은?”

국가대표를 향한 여정 중 만난 '전남 으뜸인재' 장학생 선발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면접 당시 "국가대표가 된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면접관님의 질문에 저는 한마디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저에게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취에만 매몰되어 있던 저를 깨워준 것입니다. 이후 저는 실력뿐만 아니라 드론 생태계 전반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고, 3년간의 치열한 노력 끝에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드론 레이싱 국가대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4. 대학생이 된 지금, 새로운 비행을 준비하며

이제 저는 대학교 드론 관련 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해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후배들은 겪지 않도록 매주 주말마다 재능 기부 코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전남 제2호, 3호 국가대표가 탄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지금 저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조종사를 넘어, AI 드론을 직접 만드는 개발자라는 더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남이 드론의 메카가 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저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이 밑거름이 되었듯, 앞으로의 대학 4년 또한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한 힘찬 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눈 없는 전남에서 피어나는 나의 스키 꿈

장려상 광양중학교 오진서
2025년 으뜸인재

저에게 겨울은 가장 기다려지는 계절입니다. 저는 2018년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 평창에서 오랫동안 자랐습니다. 제가 살았던 지역에는 스키장이 세 개나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스키장은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었으며 유치원 때부터 학교가 끝나면 매일 가족들과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그때는 스키가 그냥 즐거운 놀이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프리스타일 스키'라는 종목을 처음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선수 등록을 하고 꿈을 키워가던 중, 우리 가족은 전라남도 광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평창과 달리 따뜻한 광양은 스키를 타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무주 스키장까지 가는 데만 두 시간이 넘게 걸렸고, 그곳에는 제가 연습해야 할 '모굴' 코스조차 없었습니다. 제대로 훈련하려면 다시 강원도 평창까지 왕복 10시간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스키는 장비도 비싸고 시즌권이나 훈련비 등 돈이 많이 드는 종목입니다. 평창까지 먼 길을 운전하며 저를 뒷바라지해 주시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커서, 마음껏 스키를 타고 싶다는 말을 꺼내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께서 '전남 으뜸인재'라는 장학금이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체육 분야에 지원하면서도 '눈도 안 오는 전남에서 스키를 타는 나를 뽑아줄



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당당히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저의 가능성을 믿고 ‘너의 꿈을 응원한다’며 손을 내밀어 준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으뜸인재 장학금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장비였습니다. 모굴 스키는 거친 눈더미를 넘어야 해서 장비가 금방 망가지고 안전도 중요한데, 장학금 덕분에 그동안 중고로 사서 사용했던 장비를 성능 좋은 신형 장비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훈련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전남을 대표하는 인재’가 되었다는 생각에 제 실력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열심히만 탔다면, 이제는 저를 응원해 주시는 전라남도에 보답하고 싶다는 기분 좋은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동계체전에 출전하고 여러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등 저만의 실적을 쌓아왔습니다. 이제 곧 개최될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전남 대표선수로 참가하게 됩니다. 이번 겨울에도 저는 광양에서 평창까지 먼 길을 달려와 눈 위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저에게는 부모님과 으뜸인재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눈이 귀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멋진 스키 선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대회에서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꿈에 날개를 달아준 으뜸인재 장학금에 감사하며, 전남을 빛내는 스키 선수가 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굴 스키 코스(연합뉴스 사진 참조)



나를 깨운 여명, 학생의 내일을 깨울 사명

장려상 전주대학교 김예찬
2025년 KISA 장학생

저는 2020년도에 아이들의 앞날을 밝히는 교육자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사범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친형과 동생 4형제가 모두 학업에 매진하고 있었기에, 대학 시절 만큼은 부모님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리고자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의 저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평일에는 새벽 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 후 다시 새벽 공부를 시작하는 무리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지친 몸으로 전공 서적을 뒤적이다 창밖으로 비치는 희미한 여명을 마주할 때면, 그것은 희망보다는 내일의 고단함을 예고하는 불빛 같아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치열하게 살고 있었지만, 정작 임용이라는 목표에는 단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하는 제자리걸음의 연속인 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권유로 접하여 수혜받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금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수십 시간을 버텨야 얻을 수 있었던 결실이 장학금으로 전달되었을 때, 저는 그것을 10배 이상의 가치를 지닌 '시간의 선물'이라 느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예비 교사인 저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해준 첫 번째 신뢰이자 응원이라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당장의 내일을 걱정하는 대신,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저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 수혜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밤샘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그 빈자리를 사범대생으로서 갖추야 할 전문성을 쌓는 시간으로 채웠

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자 비로소 전공 공부와 교직 이수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고, 이는 곧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건강가정사 자격 이수과 마이크로 전공 수료를 통해 다양한 전문성을 높였으며, 사회에서 받은 선의를 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꾸준히 봉사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진심은 영광군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장학금이 제게 선물한 ‘시간’은 제가 어떤 교육자가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장이 되었습니다.

나를 깨운 그날의 여명은 이제 학생들의 내일을 깨울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본 경험은 제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를 넘어, 학생들의 가능성을 끝까지 지켜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훗날 교단에서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꿈을 주저하는 학생을 만난다면, 제가 받았던 따뜻한 응원을 그대로 돌려주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제게 보여준 믿음의 가치를 잊지 않고, 이제는 제가 세상의 빛이 되어 아이들의 꿈을 환히 비추는 진정한 교육자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종이 위의 다짐, 세상을 향한 약속



장려상 순천북성고등학교 박상우
2025년 으뜸인재

사람들은 흔히 ‘장학금’이라는 단어를 성적표에 찍힌 숫자나 결과물에 따른 보상으로 정의하곤 한다. 그러나 내게 그것은 이미 이론 성취를 증명하는 표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사회적 요청에 가까웠다. 전라남도의 푸른 기상 속에서 작가의 꿈을 키워온 한 청소년에게 전남 으뜸인재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원고지 앞에 세워준 분명한 계기였다.

어릴 적부터 나에게 세상은 입 밖으로 내뱉는 말보다 손끝으로 적어 내려가는 글로 먼저 마주하는 대상이었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에 차오를 때마다 펜을 들었고, 기쁨과 성장의 순간뿐 아니라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통증까지도 한 자 한 자 눌러 적으며 마음속 풍경을 정리하곤 했다. 글쓰기는 내게 단순한 재능의 발현이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고 나와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가장 익숙한 방식이자 중요한 통로였다.

그러나 작가의 길은 평안한 울타리 안에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모님께 글쓰기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양’일 수는 있었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하는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식탁 위에서 오간 “글은 취미로 써도 되잖아”라는 무심한 대화들은 여전히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입시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작가가 되겠다는 선언은 부모님께는 방향으로 비쳤고, 내게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절실한 선택이었다. 스스로를 의심하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글쓰기는 점점 더 외로운 싸움이 되었고, 지원받는 처지에서 쓰는 문장들이 과연 온전히 나의

의지에서 비롯된것인지 되묻던 그 고립감이 내가 마주한 가장 큰 위기였다.

그 막막한 시기에 찾아온 이 장학금은 내 삶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전환점을 남겼다. 그것은 부모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부터 처음 획득한 공적 신뢰였다. 특히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이 지원을 통해 평소 엄두도 내지 못했던 전문 창작 과정을 수강하고 집필에 필요한 자료들을 스스로 갖추며 나만의 창작 환경을 마련해 나갔다. 이는 내 꿈이 개인적 고집이 아니라, 사회의 기대 속에서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임을 확인하게 한 경험이었다. 그 과정을 거치며 나는 비로소 부모님의 기대를 넘어, ‘세상에 응답하는 글쓰기’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구체적인 성취로도 이어졌다. 장학금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창작에 몰입한 결과, ‘서정문학 107기 동화 부문’에 당선되어 등단 작가로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이어 ‘상상인 신춘문에’ 수필 부문에서 최종 후보에 오르며, 나의 문장이 개인의 독백을 넘어 사회와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성과들은 결코 도착점이 아니었다. 장학금을 통해 받은 신뢰는 내 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큰 질문으로 돌아왔고, 그 질문의 답은 일상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습을 드러냈다.

학교 쉬는 시간, 친구가 “이게 진짜래”라며 보여준 5·18 민주화운동 왜곡영상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멈춰 섰다. 교과서의 문장만으로는 친구의 확신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느꼈던 그날의 침묵은 나를 깊이 각성시켰다. 기록되지 않은 진실은 설명될 수 없으며,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후 장학금 지원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탐독하며, 왜곡된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의 언어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날의 무력했던 침묵은 행동으로 연결되어, 현재 내가 매달리고 있는 5·18 왜곡

문제를 다룬 소설 집필의 출발점이 되었다. 진실이 침묵 속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문장을 다듬는 일은, 내게 신뢰를 건넨 공동체에 응답하는 나만의 방식이다. 기록하는 삶을 넘어 책임지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은, 펜 끝의 결심이 일상의 태도로 이어져야 함을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약속이기도 했다.

이러한 책임의식은 글 밖의 작은 실천으로도 이어졌다. 기록하는 태도와 살아가는 태도는 분리될 수 없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방과 후, 학교 앞 산책로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워 담으며 나는 다시 한번 문장의 무게를 떠올렸다. 거리로 나서 탄소중립 실천 일기를 기록하는 행위 또한, 문장이 생각의 종착지가 아니라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의 연장선이었다.

이제 나의 글은 고독한 독백이라기보다,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는 신호에 가까워지고 있다. 전남 으뜸인재로서 받은 이 소중한 기회는 내가 질문과 고민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준 사회의 신뢰였다. 세상을 바꾸는 첫 문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의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도 전남의 이름으로 기록해야 할 침묵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문장을 써 내려간다.





장려상

도전 위에 쌓인 날들, 배움으로 피어난 나



장려상 청암대학교 **나윤정**
2025년 취업장려 장학생

저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대학교에 다시 입학한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선택은 제게 꿈과 동시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간호학과와 특성상 방대한 이론 수업과 과제, 병원 실습이 이어졌고, 그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봉사 활동과 대외 활동, 교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저는 결국 학업과 병행해 아르바이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살기 위해 노력하던 제 모습이 어느새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다시 선택한 학교였기에, 저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장학금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4학년이었던 저는 ‘취업장려 장학금’을 신청하였고, 감사하게도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이론 수업과 병원 실습, 국가고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제게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론 수업과 병원 실습 때 필요한 교재비와 생활비 등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구매해야 하는 교재뿐 아니라, 더욱 깊게 공부하고 싶은 과목의 교재를 추가 구매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집, 요약집, 모의고사 등 학습 자료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시험을 보는 8과목 중 부족하다고 느낀 과목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 추가로 보충

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자기소개서 첨삭, 취업 관련 책 구매, 면접 및 취업 박람회 교통비 등에도 장학금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금전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생활과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국가고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노력의 결실로 좋은 결과를 거둬 졸업 시 상위 5%이내의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능력을 더욱 기를 수 있었으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4학년의 학교생활 속에서도, 밝고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던 제 모습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학생 한명 한명의 성장과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저는 학업과 취업 준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한 발걸음을 한층 더 힘있게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배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노력하며, 환자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2026 공꾸는 청춘들의 성장에세이

발 행 일 2026년 4월
발 행 처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 화 061-285-9432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8층
홈 페이지 <http://www.jntle.kr>
디자인·편집 전남장애인보호작업장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내영산1길 67

이 책은 신저작권 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